

저자 이광석
출처 『NJP 리더 #10 미술관 없는 사회, 어디에나 있는 미술관』
발행처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기술 생태 감각과 미래 미술관

출판정보

기획·편집 김윤서
공동편집 윤자형
디자인 김규호
발행일 2021. 04. 19.

이광석은 테크놀로지, 사회, 문화예술이 상호 교차하는 접점에 비판적 관심을 갖고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교수로 일한다. 문화이론 전문지 『문화/과학』 공동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테크노컬처, 인공지능과 노동 과정, ‘탈’인류세, 플랫폼자본주의, 커먼즈연구, 비판적 제작에 걸쳐 있다. 『디지털의 배신』, 『데이터 사회 비판』, 『데이터 사회 미학』, 『뉴아트행동주의』, 『사이방가르드』, 『옥상의 미학노트』 등이 있다. 그 외 『사물에 수작부리기』, 『불순한 테크놀로지』, 『현대 기술.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등을 기획하고 함께 썼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뒤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 대면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필수 조건이라고, 그래서 ‘비대면(언택트)’ 관계를 재난 사회의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여게끔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재난형 자본주의에 동조하며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미래 국가의 명운을 걸고, 비대면 경제를 위한 플랫폼 자본주의와 인공지능 자동화 사회를 서두른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상황은 미술관에도 예외 없이 닥쳤다. 창·제작자와 관객을 매개하던 국공립 미술관들은 국민 방역과 대민 안전을 목적으로 진즉에 문을 걸어 잠근 지 오래다. 상대적으로 주춤하던 비대면 디지털 창작과 가상 전시와 관람의 방식이 재조명받고 있다.

일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접촉과 관계의 소멸, 소비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생산과 유통의 위태로운 플랫폼 배달노동, 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 촘촘히 관리되는 기술 방역 통제, 넷플릭스 등 알고리즘 영상미학 트릭에 갇힌 격자 속 인간들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 원했던 기술의 모습일까? 지금과 같은 혼돈의 세계 속 비대면 플랫폼 기술, ‘소셜’ 기술, 원격 소통 기술은 과연 인간 사회의 질적 관계를 유지해줄 미래 기술일까? 갈수록 인간의 기술물신이 깊어지면서 야기되는 인간-자연 생태의 근원적 소외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오늘날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이 비대면화,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매끄러운 포스트-디지털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을, 백남준이라면 어떻게 봤을까? 적어도 이 시대 미술관들은 동시대 기술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화두를 담아야 하는가? 굳게 닫힌 미술관 대신 가상의 세계로 옮겨간 미술관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답일까?

이 글은 재난 시대의 기술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진다. 먼저 동시대 테크놀로지의 위상, 특히 바이러스 재난자본주의의 기술 지배적 조건들을 살핀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숭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 이른바 ‘기술 생태 감각’의 배양을 제안한다. 그로부터 미래 미술관의 위상과 역할을 함께 모색한다. 다음 선언적 진술들이 재난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긴 여정에 일종의 생존 가이드로 읽혔으면 한다.

동시대 기술의 조건들

하나, 기술의 과포화: 인류에게 테크놀로지는 문명을 일구는 중요한 원동력이자 그 문명의 일부가 되었고, 지구 물질세계 구성의 절대 원리가 됐다. 인간 테크놀로지는 한편으론 인류의 삶과 의식의 풍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생명과 반인권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했다. 인간의 기술에 대한 믿음은 이제 신흥 종교이자 맹목이 됐다.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 기댄 자본주의 기술숭배(technofetishism)는 어느덧 우리의 삶과 의식으로 밀치고

들어와 일상의 거의 모든 배치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기술승배는 전통적인 소비자본주의의 상품물신보다 훨씬 강렬하다. 일상의 미세한 삶 속 과잉의 기술 실재와 이를 부풀리는 기술 혁신 담론들이 주위에 넘쳐나는 과포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철학자 질베르 시몽동은 특정의 기술 혹은 그 기술의 부분들이 응용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발달하는 경향을 ‘과진화(hypertélie)’라 언급한 적이 있다. 인간 이성과 합리성의 기획 안에서의 작동을 넘어서서 기술이 사회적으로 과포화 혹은 과진화하는 ‘기술잉여(techno-glut)’의 상황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근미래다. 문화연구자 마크 피셔의 용어를 빌리자면, 오늘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기술의 과포화가 배합된 고도의 신생 질서로 전면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와 다른 삶을 기획하기에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후기 자본주의 국면을 전제한다. 특히 한국은 기술 과포화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질곡의 극점에 있다.

둘, 피지털 계: 1990년대 인터넷의 상업적 보급과 함께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흐릿해지다가, 2010년대 이후 스마트문화가 열리면서 양 계(界)의 칸막이가 거의 사라졌다. 비물질에 대한 물질의 규정력은 정반대로 역전됐다. 기술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했지만, 갈수록 자본주의 현실은 사회에 미치는 기술 논리의 확장에 휘청거린다. 우리는 디지털이 현실 물질세계에 미치는 장악력을 ‘피지털(phygital)’ 계의 도래라 얘기할 수 있다. 피지털의 형성은 인간 감각과 정동의 확장과 공명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인간을 플랫폼 기계로 배양할 데이터 ‘가분체(可分體, dividuials)’로 쪼개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의 데이터 용광로에 쓰이는 불쏘시개로 만들기도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인 마우리치오 랏자라또는 후자의 측면, 즉 각종 생체 정보, 정서, 정동의 가분체들의 축적물이 데이터은행(센터) 내 적분의 알고리즘으로 처리되고 관리되는 동시대 인간의 처지를 ‘기계 예속(mechanic enslavement)’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오늘날 플랫폼 기술이 생명들에 위협인 것은, 플랫폼 기술이 피지털 논리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대(大)기계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대기계의 등장은 피지털 논리를 암흑으로 몰아가는, 일종의 비극적 계기라 할 수 있다. 후기 자본주의의 거의 모든 활동은 이미 플랫폼 기계에 흡수되거나 닷컴 기계로 옮겨가고 있다.

셋, 플랫폼 질서: 플랫폼 기계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첨단 기계들의 복합체이다. 플랫폼은 수많은 지능형 데이터 수집의 축수들을 뺀어 인간 생체리듬과 창의성의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 기계로 흡수해 이를 포획, 처리, 사출하는 강력한 지능기계로 진화 중이다. 플랫폼은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과 사물을 자신의 기계적 배치와 리듬에 맞추도록 강제한다. 플랫폼 ‘기계 예속’의 핵심에는 탈인격화된 자동 지능의 (빅)데이터 처리 권력이 도사린다. 플랫폼 질서는 고용 계약을 뒤흔들어 임노동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대부분의 인간을 유령(기계 심부름) 노동자와 그림자(돌봄과 재생산) 노동자의 지위로 재배치한다. 플랫폼 복합 기계체는 마치 유전학적 ‘밈(meme)’처럼 그 자신 내부 기술 조직의 전체 틀을 전자공간에서 국경 너머로 복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과거 자본 이식이나 자본 운동 방식과 사뭇 다르다. 더 나아가, 플랫폼은 우리가 알던 호혜에 기반한 ‘커먼즈(the commons)’의 가치와 전통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흡수해 전유할 정도로 지나치게 포획과 포식을 즐긴다. 우리에게 마치 ‘혁신’과 ‘공유’의 신기루처럼 다가왔던, ‘공유(중개) 플랫폼’이라 지칭되는 자본 기계들은 우리가 알던 비자본주의적 우정과 공생 문화(잠자리, 카풀, 품앗이, 공동밥상 등)조차 자본주의적 상품 기계로 포획한다. 오늘날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유·무형 자원 배치의 효율과 편리를 명분으로 사회-자연 생태를 교란하고 인간의 공통감각이나 관계를 자본주의적 상품 관계와 질서로 흡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모순적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보이는 예가 플랫폼 노동이다. 더불어, ‘탈진실(post-truth)’ 문제는 재현과 담론 장에서 작동하는

플랫폼 기계의 또 다른 효과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모든 역사적, 진본적, 사회적인 가치들의 자명한 질서를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인 지위로 둔다. 의도하건 아니건,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의 논리와 결합된 플랫폼 알고리즘은 이러한 동시대 자본주의 권력의 새로운 정치 문법을 위한 의식 코딩 장치가 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변수

넷, '인류세' 경연: 인간-자연 생태 오염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던 지구조차 이제 매우 즉각적이고 신경질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한때 지역 환경의 문제로 여겨졌던 사안이 이제 지구 전체의 존폐 문제로 확장됐다. 산불, 사막화, 태풍, 홍수, 폭염, 초미세먼지 등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재앙은 지구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혼한 방식이 됐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지질학적 공식 학명인 홀로세를 폐절하는, 인간 문명이 지구 행성의 존폐를 좌우하는 생태 위기의 극한 시대를 말한다. 인류세는 지금도 우리에게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행성적 규모의 쓰라린 경고를 안기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기술의 자연 생태적 조건에 대한 인류의 각성을 촉구한다. 디페시 차크라바르티가 강조한 것처럼, 인류세는 '행성의 고통', '다른 종의 고통'에 대한 지구 운명공동체적 인식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긴급한 기후행동을 요청한다. 우리는 폭주하는 자본주의 기계의 광란을 잠시나마 잦아들게 한 미생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본격적인 지구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화급한 경고처럼 느껴지기에 그렇다. 이 미생의 하찮은 존재가 질주 본능을 지닌 자본주의 기관차를 잠시 멈춰 세우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회적 약자들을 주목하게 했고 인간 아닌 못 생명과 사물들에 하나둘 생기를 되찾아 준 까닭이다. 달리 보면 코로나19는 인간 생명에 극도로 위협적이지만 정작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촉매가 된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일종의 인류세 경연이자 미미한 징후에 불과하다. 반면 인류세 파국의 전조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간과 못(비)생명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세가 주는 오늘의 교훈이 묵시론적 종말을 예언하는 공포 효과에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교훈은 기후위기에 대한 지금 당장의, 근본적 행동을 요청한다. 당장의 기후행동의 모색 없이는 감염병 재난과 더 큰 재앙이 다시 찾아올 인류의 불청객이 될 것이다.

다섯, 기술의 반생태적 경향: 기후위기와 인류세의 위기 문제에서 '굴뚝산업' 공장의 탄소 배출이 지탄받는 것과 달리, 닷컴 기업들은 꽤 환경 친화적인 자본 주체인 것처럼 취급된다. 첨단 반도체 생산, 인공지능 확장, 데이터센터 구축, 블록체인 채굴, 신재생 그린비즈니스 등은 마치 '청정'의 맑고 투명한 테크놀로지처럼 포장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반생태적 파괴력을 은폐한다. 우리네 '디지털 뉴딜'의 국가 성장론이 '그린 뉴딜'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첨단 닷컴 환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오염원, '전자쓰레기'는 생태 오염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전자쓰레기는 플라스틱 오염과 함께 지구 위기에 가장 빠르게 합류하며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골칫덩이가 됐다. 기술 재난으로 인한 생명 위기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과 방사능 피폭 사고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힘없는 지역 주민들이 희생양으로 자리한다. 반생태적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예컨대, 주류 기술체제로부터 소외된 이들, 방사능과 독성 화학기계로부터 일부 신체 능력을 잃은 이들, 중요 기술 설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에서 배제된 이들, 데이터 인권을 박탈당한 이들, 자동기계의 전산 논리에

심신이 피폐해진 이들, 불안한 플랫폼 노동으로 과로사 위험 상태에 처한 이들, 무인 자동화로 직장을 잃고 삶이 위태로워진 이들을 보라. 기술의 반생태적 속성을 막으려면, 우리의 ‘그린 뉴딜’에 첨단 디지털 조건이 낳을 수 있는 반생명·반생태적 부메랑까지도 함께 계산해 넣어야 한다. 자연 생태와 사회 생태를 기능적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우리 관행을 경계하고, 기술로 매개된 자연 사물과 인간 사회의 상호 연결된 전체 순환계를 관통해 읽어야 한다.

여섯, 방역 통제 기술의 과진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국면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일상 감각을 바꾸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필수 조건이 됐다. 이제는 비대면 관계가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로 받아들여진다. 코로나19는 사회의 잠재적이고 비가시적인 모순과 약한 고리를 차례로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K-방역’에 대한 국가의 조급증에 휘둘러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경직돼 있고 반인권 성향의 기술에 순응적이다. 기술 과진화의 주어진 벡터를 그리 큰 의문 없이 따르고 있다. 데이터 생명 통치가 대중 포퓰리즘과 결합해 각광받는 오늘날을 신유물론 이론가 레비 R. 브라이언트의 기계 분류법에 유비해 보자면, ‘경직되고’ ‘생명 없는’ 신종 비대면 기계들과 신체 추적 기계들의 배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이는 동선 추적과 감시 기술의 과진화와 과포화를 재촉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기술의 선례를 서로 참조하고 빌리고 차용한다. 이들에게 재난형 바이러스 방역 기술은, 재난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에서도 도시 설계 속에 착근된 채 유지될 공산이 크다. 디지털로 상황 통제가 가능한 ‘스마트시티’라 불리는 도시 설계 기술 방식이 현재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도시통제 방역 시스템으로 응용되고 있다. 재난 시대 방역도시 설계는 일상 회복의 시간이 오면 역진화 과정을 거쳐 스마트도시 설계에 적용될 확률이 높다.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며, 매끈하고 편리한 청정의 일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플랫폼과 자동화 기계로 이루어진 편리한 비대면 시장을 끊임없이 욕망할 것이다. 방역 통제 기술은 재난 이후 일상에서도 비대면 시장의 동반자적 역할을 떠맡을 것이다. 감염 공포는 우리 사회의 기술 가속을 더욱 끌어올리고, 어느 누구도 보건을 담보로 한 기술의 가속 방향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일곱, 비대면 무균 자동 사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인공지능국가전략 등에 이은 ‘한국판 뉴딜’은 기술 가속에 바탕을 둔 우리식의 동시대 계획경제 명령이다. 국가는 신홍 닷컴재벌의 플랫폼 용광로에 알고리즘 주체들로부터 뽑아낸 데이터를 갈아 넣는, 재난자본주의 현실에 맞춘 ‘한국판 (특히 디지털) 뉴딜’에 미래 국가의 명운을 건다. 감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비대면 시장을 향한 욕망은 플랫폼 기계와 인공지능 자동화의 사회적 편재(遍在)로 이어진다. 기술 최대주의자들,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 닷컴 엘리트들과 서구 좌파 논객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완전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화려한 공산주의’는 이른바 자동화와 ‘탈’노동의 유토피아적 미래사회 전망이다. 그러나 무감염과 기계 자동 효율의 극대화를 의도한 인공지능과 자동 로봇의 확산은, 그림자 혹은 유행처럼 인공지능 기계 뒤로 물러나 기계의 보조역이 된 인간 ‘산노동’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림자’ 혹은 ‘유행’ 노동자들이 양극화된 엄혹한 노동 현실에 처한 채 플랫폼 알고리즘 장치에 연결되어 택배, 돌봄, 배달, ‘퀵배송’, 물류 창고 관리 등 물리적 신체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 그들의 과로사와 사고사 또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 인공지능 시장을 위해 노동 약자들은 사회의 가시권 밖으로 사라지고 사회적 돌봄의 외부로 밀려난다. 장차 인공지능 자동 기계가 더 발전하면 그나마 안정된 임노동조차 지능기계로 대체되는 속도가 점차 가속화할 것이다. 그 대신 이들 지능기계의 수발을 드는 그림자·유행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노동이 폭증할 것이다. 또한 돌봄과 재생산 등은 무상 노동으로서 자본주의의 주된

동력으로 흡수되어,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기술 예측화하면서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방식이 변화할 공산이 크다. 동시대 자본주의는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실업’ 등 궁극적으로 노동의 소멸이나 종말을 가져오기 보다, 인간 임노동을 대체한 지능 기계들이 중심에 서고 이에 예측된 인간 하층계급이 이 기계들을 위한 심부름꾼이자 허드렛일을 하는 ‘AI 자본주의’로 갈 확률이 높다.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 자신의 다른 삶을 위한 전환 기획이 없다면, 자동화 사회의 ‘화려한 공산주의’의 꿈은 허황되다.

기술의 생태정치학

여덟, ‘탈’인류세 전략: 인류세 경련은 “모든 단단한 것을 대기 중으로 녹여 없애버리는” 자본주의 폭주 욕망 효과로 볼 수 있다. 지구가 이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이제와 다른 삶을 사유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통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려는 사유의 각성 없이는 각자의 생존조차 불가한 시대다. ‘탈’인류세 전략은 지구 속 (비)인간 종들 사이 상호 공존을 위한 생태 대안 논리를 세우는 일이다. 이는 국소적으로 위치하며 서로 무관한 듯,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은 맞물리고 이어져 있다는 포스트휴먼적, 관계적 물질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스테이시 엘리모의 용어로 말하면, 탈인류세는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을 키우는 일이다. 하지만 인류세 경련에는 기실 오랜 시간 진행되어온 고약한 자본주의적 질곡들, 즉 ‘저렴한 자연’의 개발과 수탈 과정, 생명 자연환경의 대기업 공장 경영, 토지 및 도시 공동 인프라 파괴, 인간 노동의 피폐화, 고도 자동화 기술 권력 등이 크게 얼룩져 있다. 이 점에서 지구 생태를 위기로 몰고온 ‘자본세(capitalocene)’를 비판하지 않고, 그저 오늘의 위기를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운명 공동체적 인류세 논의에 그치거나 과학기술을 맹목하는 것은 순진하거나 허망하다. 탈인류세의 유효하고 급박한 전략으로서 등장한 ‘그린 뉴딜’이 ‘환경 비지니스’나 ‘기후 케인즈주의’의 시장 변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타는 지구’를 구출하기 위한 응급처방이 마련되고 세계시민의 장기 생태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그린뉴딜을 지구 구출의 기회로 삼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지구 생태사회를 도모할 더욱 급진적인 계획이 함께 구상되어야 한다.

아홉, 기술 생태정치의 영역: 기술로 매개된 산노동의 피폐화, 의심과 불신의 탈진실 정치, 극우 대중정치의 확장, 인간의 신체와 의식을 가분체로 분할해 통제하는 빅데이터 과학, 그리고 알고리즘 자동화에 기댄 생명 포섭 등 기술 예측 상황이 우릴 더욱더 휘감을 것이다. 첨단 기술을 매개한 극도의 ‘성장숭배’를 떨쳐내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선순환적으로 이뤄지는 물질대사 과정에 균열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들을 제거해, 생태 합목적적인 기술문명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생명 존중 없는 혁신 논리를 쫓아내고, 생태-공생 지향의 기술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우리의 생태를 크게 자연, 인간, 기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들 각각은 자가 진화하기도 하고 서로 경계 없이 겹쳐지고 넘나들기도 한다. 지구 자연과 관련해서 테크놀로지의 방향은, 한편으로 ‘저렴한’ 자원의 수탈과 성장 중독, 발전 패러다임을 떨쳐내고 ‘생태기술(ecological technology)’의 전망을 내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종적 차이 속 공존과 연대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지상의 모든 (비)생명 타자들과의 ‘공생기술(convivial technology)’ 전망이 함께 도모되어야 한다. 미래 기술적 전망, 즉 ‘생태-공생 기술’이 온전해지려면, 비자본주의적이고 대안적인 삶 디자인의 기획 없이는 무망하다. 펠릭스 가타리의 표현을 살리자면, ‘기계권(méchanosphère)’이 자연과 인간(사회) 생태와 맺는 상호 관계의 지형학과

열, 기술생태정치학의 구성: ‘기술생태정치학(techno-ecological politics)’은 큰 틀에서 탈인류세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묶일 수 있지만, 인간 기술의 미래 지속가능한 생태 전망이라는 점에서 기술 그 자체의 생태정치학이자 실천이기도 하다. 기술은 그 자체로 자신의 생태계를 만들면서도 자연과 인간 생태에 그물처럼 얽혀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기술은 보다 공격적으로 이 세 생태계 사이에 서로 긴밀히 엮인 그물망의 형세와 배치를 조절하고 있다. 이는 자연-기술-사회 생태의 선순환, 그리고 생태 균열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저항과 실천의 방법론을 요청한다. 즉, 자본주의 기술의 속도와 질주를 막고 다른 삶을 기획하기 위해 인류의 실천 이론적 경험과 유산을 동원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궁극적으로 기술생태정치학은 지구 미래 시나리오로부터 위태로운 사회-생태 약자들을 중심에 둔 새로운 기술 생태적 전망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그 시나리오에는 인간 중심의 지구 구출 시나리오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현실에서 타자화된 인간 종을 비롯해 동물, 기계종, 돌연변이, 자연 사물 모두를 살리는 공생공락의 차이 속 연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평평한 존재론적’ 관계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기술 풍광과 변화폭을 무시하거나 놓쳐선 곤란하다. 인간의 빅데이터 알고리즘, 생명정보 혹은 유전공학의 정치경제 권력으로 인해 인간이 신생 사물과 맺는 평평한 관계가 급속히 훼손되며 자본 지배력이 더 내밀하게 행사될 여지가 커졌다. 실제 (비)인간 종들 간 연결 밀도가 증가하지만 현실적인 힘의 배치는 그리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고 후기-자본의 사유화된 가치 체제와 사물화의 그늘 아래로 대부분 포획될 것이다. 인간과 못 생명, 사물 사이의 평평한 존재론적 횡적 유대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확장을 포용하면서도,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에 의해 뒤러린 생태 균열적 내상과 생태 계급정치의 구도를 정확히 진단해 급진적 생태정치학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미술관의 위상

열 하나, 기술-생태미학: 뉴미디어 이론가 레프 마노비치는 《2020 아로스 일레트로니카》를 지켜보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디지털아트 선언’이라는 논쟁적 사족을 남겼다. 디지털아트 경향에 대한 그의 혹평은 지금까지 기술-예술 작업들에 드러나는 현실과 유리된 미학적 성격을 향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는 디지털아트가 1940년대나 지금이나 매체만 다를 뿐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무도 찾지 않는 비현실의 기술미학적 독백에 매달린다고 평가한다. 마노비치는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세계가 오히려 더 리얼하고 대중적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넷플릭스가 만들어내는 양자이론(Netflix quantum theory) 알고리즘 영상미학의 극도로 상업적인 전략을 기술미학의 정점으로 놓는 그의 접근 방식은 다분히 문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90년대 이후 포스트-미디어에서 포스트-디지털(온라인)로 이어지며 기술주의적 숭고미를 거듭해온 디지털아트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의 선언은 곱씹어볼 만하다.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은 이 기술숭고(techno-sublime)의 계기를 더 가속화한다. 가령, 국공립 미술관의 장소적 기능은 사라지고 가상의 세계로 옮겨간 미술관이 대세이자 미래로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주춤하던 비대면 디지털 창작과 가상 전시와 관람의 방식이 재조명받고 있다. 오늘 거의 모든 것이 비대면, 자동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매끄러운 포스트-디지털 사회를 향해 달려간다. 오늘 백남준이 살아 있다면 그는 이를 어찌 마주했을 것인가? 백남준은 누구보다 뛰어난 매체 기술의 해석자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주류화된 매체 기계의

사회적 쓰임새와 경직된 한계를 넘어서서 늘 ‘용도 변경’과 전복을 꾀하려 했다. 그가 이 시대를 다시 살고 있다면 단순히 바이러스 공포에 순응하여 기술의 도구적 파진화나 주어진 기술의 방향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신생의 매체들을 다루며 기술미학적 전복과 혁명을 통해 기술-인간이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미학적 상상력의 확장을 도모했으리라.

열들, 기술 약자와 좀비 기계의 생태 커먼즈: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창궐 예방이나 지속가능한 지구 회복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난형 기술사회로 나아가며 비대면 뉴노멀 논리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는 지구 생태 파국을 앞둔 미봉책일 뿐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인간 상호 연대와 관계성의 구축을 새롭게 준비하는 일이 기술 생태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가령, 효용 가치가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본주의의 ‘계획적 노후화’로 폐기된 수많은 ‘좀비 미디어(zombie media)’ 기계들의 부활과 복원, 인간과 새로운 포스트휴먼 기계체 사이의 공생 모색, 인간 신체의 자동기계 예측과 기술실업 문제에 대한 개입, 남성 기술적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제노페미니스트적 대안기술 모델 모색 등 기술 생태 논의에서 배제된 기술 실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이 ‘뭉이 없는 이들의 뭉’을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왜곡이 오히려 후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첨단인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며 앞만 보고 질주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비대면 자동화의 세련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투명한 세계에 비교되는 지체, 지연, 흑백, 저해상, 잡음, 물질 관계와 접촉, 버그, 돌연변이, 좀비미디어 등 기술 소외의 존재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투박한 과거나 미숙한 오류가 아니다. 외려 이 모두를 후기자본주의적 사물 소외와 기술 생태의 민낯을 드러내는 중요한 복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술의 파진화와 진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인간의 정서를 움직이는 힘은 넷플릭스의 세련된 알고리즘 영상미학보다는 배제되고 버려진 탈인간 기계들의 생김 그대로의 복원, 그리고 이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앙상블적 지위까지도 인정하는 데 있다. 이들 인간-기술 약자들 사이의 자율 연대의 결사체, 즉 커먼즈적 전망은 인간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물 기계들까지 포함하는 생태정치와 함께 비로소 완성된다.

열셋, 미래 미술관과 기술 생태 감각 배양: 따져보면 우리 현실에서 테크놀로지는 타자와의 연대와 호혜를 복돋고 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갈수록 이를 흔드는 부정적인 문명의 산물이 됐다. 아니, 테크놀로지는 이제 절대 승고의 대상으로 신경화되었다. 동시대 미술관은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를 위해 들러리서는 중매인이 아니었는지 깊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기술 질서는 우리 현대인들의 사회심리적 관계와 그 밀도를 조종하고 왜곡하는 위치까지 점하게 됐다. 바이러스 재난 기술사회의 설익은 구호와 함께 방역 질서로 급조된 거리두기형 기술로 말미암아, 이른바 ‘비대면 피로도(Zoom fatigue)’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백남준의 선물’로 기억될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술관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이어서야 할까? 적어도 미술관의 첫 과제는 기술-예술의 지금과 같은 지배적 흐름을 멈춰 세우고 기술과 함께 새로운 사유와 성찰의 계기나 미학적 상상력을 마련하는 일이라 본다. 국가가 주도하는 비대면 방역 기술을 승배하는 대신 못 생명 약자, 타자와 함께 하며 사회적 공통감각을 키우는 기술 창발을 들끓게 해야 한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가상 기술로 매개된 작가-관객 소통의 확장이란, 기능과 형식에 매몰되기보다 안전으로부터 배제되고 탈락된 뭉 없는 이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에 있다. 그 어느 곳보다 현장의 미학적 수행과 이의 사회적 교감을 중시하려는 미래 미술관은, 점점 양극화하고 공통의 기반이 흐트러지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공통감각이란 내가 타인과 함께한다고 느끼는 교집합적 관계의 정서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공동의 감각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는 공통감각을 망실하면서 생긴다. 생물학자이자 페미니즘 이론가 도나 해러웨이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관계에 선행해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 객체, 인종, 종, 장르, 젠더 모두는 관계의 산물”이다. 외부 타자와 상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서로를 구성한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공통감각은 단순히 인간들끼리의 상호 관계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통감각은 인간 타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범생명체 및 기술 인공물과의 호혜적 관계를 전제한다. 이로부터 오늘의 인류세 위기를 근원적으로 따지는 자연-기술-사회의 관계적 생태 회로에 대한 사유와 성찰적 감수성을 기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 미술관은 적어도 동시대 기술 문제를 화두로 삼거나 이를 미학적 재료로 가져와 우리 인간 사회의 기술 발달에 깊게 드리운 과진화의 이상 징후를 드러내고, 새로운 기술미학적 감각을 생성하여 이를 어떻게 상호 호혜적 감성과 공통 정서 구조의 생성에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는 시민의 ‘기술 성찰력’ 혹은 ‘기술 역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있다. 미래 미술관은 인간 신체에 가로놓인 첨단 기술과 미디어의 신생 정서 및 질감을 해부하고 이로부터 기술미학적 성찰 감각을 배양하는 실험실이 기꺼이 되어야 한다. 미래 미술관은 시민의 기술 생태에 대한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을 키우고 배양하기 위한 사회 공통의 처소가 될 필요가 있다. 기술철학자 욱휘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미래 미술관은 일종의 ‘기술적 지식(savoir technique)’을 시민의 언어로 제공하고, 시민의 기술 성찰 감각을 복돋는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미술관을 뭉 없는 이들과 사물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통로이자 생태정치적 성찰 감각을 키우는 파토스(pathos)의 실험실로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니다.